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유지나



“언제부터 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내가 이 빗속에서 있었을까?” 언제나 길동무 되자던 소녀가 꿈 찾아 떠나자 남을 그리며 송창식이 노래한 ‘비와 나’의 가사이다. ‘비의 나그네’에서는 남이 오시고 가시는 발자국 소리를 밤비 내리는 소리와 일치시켜 나간다.

“창밖에는 비 오고요 바람 불고요” 같은 노래도 있다. 비를 님과 일치시키며 터져 나오는 우수를 줄기차게 노래해 온 그는 단연코 비의 음유 가객이다. 그래서일까?

비가 오면 나는 습관적으로 비노래를 들으며 솟아오르는 열정적 우수에 빠져든다. 그런 상태에서는 책도 잘 읽히고 차도 더 맛있다. 글쓰기도 마른 날보다 물처럼 광포함과 잔잔함을 오가며 잘 풀려나간다. 라디오에서도 비만 오면 비노래가 세상을 적셔나간다.

그런데 요즘 100년만의 호우, 물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비 노래를 즐기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낀 탓일까? 한 디제이는 폭우사태 속에 비 노래를 트는 걸 이해해 달라는 말도 덧붙인다. 비가 오면 안 오

건 송창식의 비 노래에 취해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도 감상의 물꼬를 트던, 소녀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의 노래는 여전히 내

인생길의 동무이다.

‘비처럼 음악처럼’은 김현식의 대표곡 이자 그의 삶을 그린 영화제목이기도 하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로 시작되는 이 노래로 떠난 남을 떠올리며 내리는 비와 흐르는 눈물로 이쁜 이별을 추억한다. 채은옥의 ‘빗물’

온 힐링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이탈리아 작은 섬에 유배당해 우체부와 나누는 시적 소통을 그린 영화 ‘일 포스티노’, 우체부에게 메타포를 설명하다가 네루다는 묻는다. “하늘이 흘리는 눈물은 무얼 말할까?”라고.

메타포란 말 자체를 처음 접한 우체부는 답한다. “그건 비죠.” 그렇다. 그건 메타포란 비유법이기도 하지만 실은 자연의 법칙 자체이기도 하다. 비는 하늘의 눈물이자 곧 우리의 눈물을 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어, 우리가 자연의 순환 속에 돌아가는 자연 생명의 일부임을 알려준다. 이번 폭우에도 그런 메시지를 담겨있다.

## 비와 송창식, 그리고 자연과 뇌

에서도 비는 잊지 못할 남을 떠올리게 만드는 축매제이다.

천재 뮤지션 신중현의 ‘봄비’에서도 비는 마음을 울리며 달래주는 외로운 인간의 님과 같은 존재이다. 여러 가수가 노래 했지만 특히 소울 흥취에 젖어들게 하는 박인수판이 더욱 마음을 뒤흔든다.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한없이 흐르네 /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언제까지 나리려나/ 마음마저 울려주네”라며 그윽하게 울부짖는다.

어디 봄비만 그런가? 어떤 계절이건 어떤 지구 구석에서건 비는 마음을 흔들고 적시며 달래준다. 짙곡의 역사에 시달려

폭우사태가 인재인지 아닌지 공방을 벌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자연을 몸살 나게 하는 개발이 돈벌이에 중독되어 물고를 막고, 물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물의 숨통인 바다를 괴롭히며 자연지배적 환상을 경제적 부와 일치시키는 인간의 오만을. 그렇다가 정도를 넘어서면 그동안 침묵하며 견디던 자연도 살기 위해 밤바둥치며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한다는 것을. 재난영화도 그 점을 이용한다. 환경재앙을 재난의 핵심으로 삼아 인류가 당하는 재앙을 드라마의 정점으로 삼는다. 경계개발로 북극 빙하가 녹아 물세상이 되자 마실 물과 흙을 찾으나서는 처참한 생

존기가 담긴 ‘워터 월드’. 후우로 침수된 도시의 비극과 액션을 결합시킨 ‘하드 레인’. 그리고 쓰나미를 당하는 사람들의 시련을 본격적인 한국 재난영화로 만들어 주목을 받은 ‘해운대’ 등은 허구만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만 같다.

또 다른 한편에선 에코를 머리에 단 채 경제적 수익을 목표로 하는 개발책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폭우피해를 당하면서 자연을 함부로 훼손한 대가임을 반성하는 이야기도 봄풀처럼 터져 나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자연존중의 삶과 정책이 개인과 집단에서 전폭적으로 실행되지는 않는 점이다.

물처럼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을 전하에 모르는 자가 있지만, 진실로 실행하는 자는 없다.(弱之勝強, 柔之勝剛, 天下莫不知, 莫能行)”는 노자의 탄식은 물을 우습게 보는 인간의 폐부를 찌른다. 물을 가볍게 여기는 인간 문명은 물에 대한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하늘이 내리는 물인, 비야말로 농경시대가 아니어도 우리를 먹이고 물려주고 위로하는 생명의 기원이자 님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소자연인 인간이 대자연인 우주 속에 사는 존재임을, 자연의 자녀인 가객들로 하여금 비 노래 메타포로 줄기차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NGO 칼럼



김용재

## 북구 이마트 감사의 교훈

대한 고발조치,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북구청은 즉시 절차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북구청장은 잘못한 행정이 초래한 사태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동안 신세계 측이 우려다짐 식으로 입점 계획을 강행하여 빚어진 지역사회 피해는 매우 크다. 해를 넘가며 전개된 행정 관청과 지역주민 사이의 충돌과 갈등으로 북구청 앞마당은 조용할 새가 없었으며 입점 저지를 둘러싼 수많은 분쟁과 소송 등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주요 이해 당사자이며 배제되었던 고려중·고등학교 측도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입점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마트 입점 소송은 광주 유통상권을 독점하려는 대기업 유통업체들과 물의 몫지마 입점 경쟁이 빚어낸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진출로 빚어진 갈등은 북구 이마트 입점 건이 전부가 아

니다.

치평동, 풍암동 두 곳에 SSM을 열려던 홈플러스 층도 입점 중단 선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하루빨리 입점 철회 수순을 밟아야 했으며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토종마트를 인수하여 몸집을 키운 롯데쇼핑 층의 계속되는 가맹점 진출사업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고래싸움에 새우들 터지는 격으로 바탕 끝에 내몰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근본 방안은 오직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추가 입점을 자제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입법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중소 유통업체들과 상생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광주시 감사결과 공표 하루 전날이었던 7월 20일 부산시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

졌다. 부산시 광복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정신 차려 롯데! 부산시민운동본부’ 발족식이 열린 것이다. 발족식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광복점 롯데마트 입점 철회 등을 요구하며 롯데그룹이 부산을 근거지로 영업을 하며 자차단체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부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는 극히 미약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롯데그룹을 부산에서 맹기 막대한 이익을 다시 투자하지 않고 외지로 빠져나온다. ‘먹튀기’라고 비판하였다. 자자력을 잃은 대기업 유통업체의 몸부스러기를 견제하려는 시민사회 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진출과 성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 요즘은 군단위로 대형마트가 다 들어서고 있다. 좁은 서식지가 감당하기에는 거대공룡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 것이다. 이러나가는 지역경제의 생태계 전부가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의 순환과 지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상생경제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꼼꼼이 돌아봐야 할 때이다. 이제 남은 것은 상생을 위한 지혜와 단호한 결단뿐이다.

〈중소상인실리기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기고



임성식

## 산업계의 마지막 희망은 전문계고다

할 난제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얼마 전 전문계고교에서 특강을 하면서 4년제 대학에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70% 이상의 학생이 손을 들었다.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디 학생들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OECD 평균 56%보다 뛰어난 것은 꼭 교육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제도적인 정책 입안의 실패에서 온 부산물이기도 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백수로 내몰고 번갈등 록금 시위에 참가하게 만든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산업체에서는 기계를 운전하고 수리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생산라인을 제대로 가동을 못한다. 그런데도 정부나 정치권은 이에 대한 해법 찾기에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백수는 200만, 외국인 노동자는 50만이 넘는다고 한다. 물론 교육정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고졸과 대졸의 입금격차, 고졸에 대한 사회적 인 편견, 대학의 난립 등 연관되어 해결해야

고등학교를 2014년까지 80곳으로 줄일 계획인데 우선적으로 63개 전문계고교 중 10여곳을 통폐합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학생 정원을 제우지 못하는 전문계고교가 많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멀리 보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선진국과의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더욱이나 수출산업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해야 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섰다. 이러한 공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기계나 장비들은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고가(高價)의 장비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계를 운전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실업계 고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둑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기계의 가동률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생산성과 연결이 되며 그 생산성이야말로 제품의 가격과 품질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기기 조종사 한명 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40억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사회적인 비용도 사실 엄청나게 소요된다. 이러한 기능인력을 키워내는 전문계고교를 입학정원을 제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줄여버리다면 일반고교를 통한 대학 진학률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미스매칭에 의한 청년 실업률도 현층 증가 될 것이다.

전문계고교의 문만 열어 놓는다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관된 정책이 병행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고졸사원 채용확대와 함께 학력 간 금격차 축소, 산업기술 인력에 대한 복지待遇제도 확대 등 기능인력에 대한 배려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젊은이들에게 목표도 없는 대학 진학을 부추기는 제도보다는 오히려 전문계고교 졸업 후 ‘선 취업 후 진학’이나 전문대학의 특성화학과로 많은 우수인력이 유입 되어 가능인력 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서 볼 때 현시점에서 전남도 교육청이 견토하고 있는 전문계고교를 우선 통폐합하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광주집코리아 대표〉

## 고졸 채용 확대 바람직...임금격차도 줄여야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간다. 때문에 기업에서 고졸을 뽑을 일이 없다. 그런데도 고졸 학력자를 채용하는 방송사와 은행들의 욕구와 생각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여찌면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이 최직을 보장해주던 시대는 끝난 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그동안 고졸 학력으로는 아래 취업 시장을 넘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대학 문을 두드렸다. 이 같은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대졸자가 넘쳐나다 보니 과거 고졸자를 주로 뽑던 직종까지 대졸자들로 체워 진지 오래다.

오죽하면 직원 채용 시 고졸 할당제를 하자는 말이 나온다.

▲윤석천·광주 남구 월산5동

## 시설

## 日 ‘독도 망동’ 단호하게 대처해야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이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끝내 유통도 방문을 위한 입국을 강행했다. 이들은 1일 오전 하네다발 김포공항 행 전일본공수(ANA) 비행기 편으로 출국, 오전 11시1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해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의 품수에 멀려들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노림수에 끌려다녔다는 지적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진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면 이웃국가의 영토주권마저 분쟁하려는 파렴치한 행동부터 접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해야 함은 물론이고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일본의 관심 있는 국민과 지도층이 양식과 이성을 보여줄 때다.

우리 정부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망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 교통사고에, 음주사고도 광주가 1위라니

‘전국 교통사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광주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도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 불명예에 ‘관왕’을 기록하게 됐다. 이러한 오명은 무질서에, 시민의식 저질이 넓은 결과라는 점에서 과연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내놓은 ‘2010년 지역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자동차 1만대 당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는 20.5건으로 전국 평균의 13.4건보다 무려 1.5배나 많았다. 자치구별로도 서구 26.9건, 북구·광산구 20.0건, 동구 18.8건, 남구 17.5건 등 전국 평균보다 많은 음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운전자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요즘은 술 취한 자가 운전자들을 위해 대리운전 영업도 발달해 있지 않는가. 경찰은 특별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상시적인 음주운전 단속으로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만이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 無等鼓

‘만만디’(慢慢的·느리게)의 중국어 ‘콰이콰이’(快快·빨리빨리)로 뒤바뀐다는 게 중국의 아심이다. 내친김에 ‘최심’(最深)의 기록까지 챙기겠다는 욕심이다.

또 자체 기술로 개발한 무인승용차는 평균 시속 87km로 시험주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개발을 선도한 심천 국제무역빌딩(53층)의 ‘삼천일층루’(三天一層樓)는 중국의 ‘속도’를 대변한다. 빌딩 한 층을 불과 사흘 만에 완성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빨리빨리의 불안이 현실로 다가온다. 지난 23일 중국 남부 저장성 원저우에서 발생한 고속철도 선로 이탈사고가 단적인 예다. 갑자기 2량이 교량 아래로 추락하면서 39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부상했다.

부상했다. 속도전에 매달리다 안전을 간과한 것이다.

아직 별일은 없다지만 심천의 삼천일층루도 마음에 쓰인다. 느닷없이 한강으로 주저앉아버린 선수대교 사고를 치른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빨리빨리는 항상 적잖은 ‘수업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榮 편집국장 曹庚完